

---

## FOCUS

## FOCUS

### KS F 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 규격개정

기술표준원은 1994년 개정이후 5년마다 확인, 점검하게 되어 있는 KS규격(한국산업규격)제도에 대해 이번 KS F4009(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개정하게 되었다.

지난 4월부터 개정에 앞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일 밀접하게 관련된 레미콘제조업체의 의견은 콘크리트 펌프카타설시 슬럼프 15cm 이상을 사용하는 규정의 유예기간연장을 요청, 레미콘운반시간의 계절별 차등적용하여 보다 합리적 규정으로 유도를 요청한바 있다.

레미콘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으나 아직도 현장의 공사비절감을 위해 저슬럼프주문으로 가수의 현장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향후 2-3년 간 더 홍보를 하는 차원의 규정 삭제 유보를 요청하였고, 이번 이 규격에 슬럼프 15cm 규정을 삭제 할 경우 건설현장의 물타기(加水) 시비가 일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기량 시험방법에 있어 고강도 (400kgf/cm<sup>2</sup>이상) 콘크리트 제조시 공기량의

허용범위 규정이 없어 레미콘제조업체의 불이익이 야기되지 않도록 공기량의 규정을 두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

### 레미콘산업 현안문제 해결 시급

레미콘 제조업의 가동율은 30%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에 건설사들의 가격인하 압박은 더욱 레미콘 제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 건설경기의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레미콘수요 물량감소로 레미콘제조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수도권 레미콘제조업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레미콘업체 스스로 자생의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없어 지난 9월 7일 국민에게 알리는 호소문(한국경제, 매일경제 1999. 9. 7 화요일)을 통해 난국 타개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 레미콘트럭 건설현장주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건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서울·경인지역

통행증 발급 회원사로 구성된 운수부서협의회를 통하여 현 도심권 운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공사 현장주변에서 대기하는 믹서차량을 주·정차 위치으로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레미콘의 특성상 현장에서 다소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IMF 이후 레미콘제조업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현장주변의 레미콘 차량에 대하여 비표발급 또는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견의 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등은 경찰청으로 이관하였고, 경찰청은 법에 근거한 주·정차단속관련 비표발급은 어려우며 비표발급으로 인한 타산업의 요청도 쇄도할 우려로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다.

현재 건설현장의 믹서트럭 주·정차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비춰 앞으로 현장내 주·정차로 인한 스티커 발부의 해결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99년도 시공능력 공시

건설협회는 지난 8월 2일 토목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를 확정 공시하였다.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서 현대건설, 대우, 삼성물산, 동아건설산업, 대림산업이 97, 98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상위그룹을 차지하였다.

상위권을 차지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동시에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업체수도 크게 늘어 났다고 밝혔다.

100억원이 넘는 건설업체수는 모두 703개사, 100억원 미만인 업체수가 1천344개사로 전년대비 100억원 이상 건설업체수 739개사에 36개사가, 100억원 미만 업체는 지난해 951개사에 357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

〈1999년도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현황〉

순위	회사명	평가액
1	현대건설(주)	46,213
2	(주) 대우	34,786
3	삼성물산(주)	30,889
4	동아건설산업(주)	22,541
5	대림산업(주)	19,273
6	현대산업개발(주)	19,092
7	엘지건설(주)	17,982
8	에스케이건설(주)	14,648
9	포스코개발(주)	13,558
10	쌍용건설(주)	12,915
11	한국중공업(주)	10,062
12	한진건설설계(주)	9,073
13	한우산전(주)	8,428
14	동부산전(주)	8,202
15	금호상공(주)	8,187
16	삼성중공업(주)	8,186
17	롯데건설(주)	7,103
18	(주) 삼한양양(주)	6,116
19	삼환기업(주)	5,856
20	코오롱공영(주)	5,365
21	풍한(주)	5,347
22	한신(주)	5,226
23	(주) 태영(주)	5,131
24	(주) 동아건설(주)	4,991
25	경남기전(주)	4,915
26	삼부토건(주)	4,898
27	벽산전설(주)	4,889
28	삼성엔지니어링(주)	4,873
29	한라건설(주)	4,803
30	(주) 우방(주)	4,492
31	고려산업개발(주)	4,463
32	국동화전(주)	4,301
33	신화전(주)	4,237
34	(주) 한화(주)	3,883
35	한진종합건설(주)	3,578
36	(주) 우성(주)	3,468
37	현대중공업(주)	3,407
38	고려신성(주)	3,346
39	(주) 남광토건(주)	3,284
40	(주) 계룡건설(주)	3,282
41	성원건설(주)	3,221
42	(주) 광진설산(주)	3,091
43	임성광토건(주)	3,074
44	(주) 청삼호구	3,071
45	(주) 강종합건설(주)	3,022
46	대아건설(주)	2,709
47	한일건설(주)	2,670
48	한화성산(주)	2,596
49	화광토건(주)	2,555
50	임광토건(주)	2,468

### 〈1999년도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현황 계속〉

순위	회사명	평가액
51	성지건설(주)	2,445
52	(주)신한	2,361
53	금광기업(주)	2,358
54	(주)국제종합토건	2,347
55	(주)보성	2,341
56	엘지엔지니어링(주)	2,313
57	아남건설(주)	2,281
58	한솔건설(주)	2,257
59	(주)건영	2,200
60	유원건설(주)	2,113
61	홍화공업(주)	2,044
62	(주)대동주택	1,954
63	(주)동양고속건설	1,917
64	(주)후지타	1,844
65	(주)부영	1,814
66	진로건설(주)	1,781
67	남양건설(주)	1,762
68	(주)동성종합건설	1,756
69	이수건설(주)	1,720
70	(주)서광건설산업	1,687
71	보성건설(주)	1,660
72	한국전력기술(주)	1,648
73	(주)삼익	1,635
74	신안종합건설	1,635
75	한라산업개발(주)	1,633
76	삼협개발(주)	1,611
77	성원산업개발(주)	1,606
78	(주)신일건설업	1,552
79	벽산개발(주)	1,514
80	대보종합건설(주)	1,473
81	진흥기업(주)	1,472
82	일성건설(주)	1,441
83	(주)대호	1,429
84	(주)대동	1,428
85	(주)동성	1,423
86	(주)중앙건설	1,408
87	(주)서한	1,329
88	삼익건설(주)	1,313
89	송촌건설(주)	1,313
90	국제종합건설(주)	1,307
91	범양건설영(주)	1,298
92	신원종합개발(주)	1,251
93	강산건설(주)	1,224
94	동양시멘트(주)	1,215
95	남해종합개발(주)	1,213
96	(주)효자건설	1,212
97	(주)경일건설	1,200
98	요진산업(주)	1,175
99	진덕산업(주)	1,163
100	(주)대우엔지니어링	1,155

다. 토목건설공사 시공능력 순위 100위 까지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다.

### 믹서트럭 통행증 발급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제3차 도심권 통행증 발급을 지난 9월 2일 통행증을 필요로 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도심통행증 발급신청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발급받아 회원사 34개사 53개 공장에 배부하였다.

이번 통행증발급의 유효기간은 1999. 9. 10 ~ 2000. 3. 9일까지이며, 기존의 통행증은 수거하였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통행증을 발급하여 회원사에 배부하여준 결과 회원사들의 이전에도 심통행으로 인한 범칙금의 부담이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사로써도 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수도권 레미콘 영업부장 세미나 개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수도권 레미콘영업부장 세미나를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수도권의 51개사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레미콘산업의 전망 및 판매전략에 대한 강좌와 권역별 분임조 토의를 통하여 회원사간의 유대 관계를 도모하였다.

세미나가 끝난 후 설문을 실시한 결과 향후 세미나를 연례행사로 계획했으면 좋겠다고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으며, 앞으로 레미콘의 향후 진로방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회원사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이러한 세미나를 통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세미나 결과로 나타났다.

---

## ‘현장배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폐지·건의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서는 IMF 속에 레미콘제조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고시한 ‘레미콘현장배처플랜트설치및관리에관한지침’ 폐지·건의안을 지난 9월 1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다.

내용으로 건설공사현장의 여건을 감안한 현장배처의 설치를 허용한 것은 레미콘공급이 어려운 격오지나 특수콘크리트이외의 레미콘 제조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1995년 고시후 레미콘업체가 급속도로 신·증설하여 현재 년생산능력이 3억m<sup>3</sup>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년 출하가 1억m<sup>3</sup>내외에 그침으로 레미콘제조업체의 경영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또한 레미콘 공장의 KS제품에 비해 현장배처의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건교부고시 내용을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어음부도율 큰폭 상승

지난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중 어음부도율은 1.12%로 7월에 비해 1.03%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같이 어음부도율이 큰폭으로 상승한 것은 대우그룹계열의 위크아웃 착수에 따른 것으로 대우계열사의 발행CP등 융통어음이 대량부도처리된데 따른 것으로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때인 97년 12월 1.49%에 육박하는 것으로, 이번 대우그룹의 위기상황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1%로 전월보다 1.12%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방도 0.15%에서 0.20%로 높아졌다.

한편 8월의 부도업체수는 482개로 7월의

519개보다 37개 감소하였다.

### 일본 레미콘업계 품질향상 비상

지난 98년 일본에서는 전국 레미콘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3천 152개 공장 가운데 약 90%공장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공장은 약 10%로 판매경쟁이 심한 지역에 부적합공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며 밝혔다.

과거 일본레미콘업계는 지역별로 독자적인 품질감사를 실시해왔으나 구입자의 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산성, 건설성의 지도를 받아 전국레미콘공업조합연합회등 산·학·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국레미콘품질관리감사회(전국회의) 및 지구회의에 위탁, 전국을 하나의 단일 품질감사제도의 운용을 개시하게 되었다.

이번 품질감사에 있어 적합판정을 받은 공장에 대해 합격증을 교부하고 있는 지구회의 외에 별도의 명칭으로 교부하고 있는 경우 등 통일되지 못하는 점과, 합격증 교부의 적합 판정기준도 지구별 독자기준으로 돼있어 이에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에 준거해 공장의 적합성을 판정, 합격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전국적인 레미콘품질관리감사제도가 확산되면 적합마크를 받은 공장과 그렇지 않은 공장간의 제품에 따른 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일본레미콘의 운영형태를 따라간다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우리도 레미콘품질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